

세계의 교회의 모습은
알리기 위해 「세계教會의 과
심사에서」를 게재합니다.

伝道旅行記

四国の同胞を 찾아서

牧 師 田 永 福

二十二年전부터 총회의 속
원이요 선교사업에 대한
의 큰 목회인 四国개척
전도를 실시키위해 재
착으로 전도와 시찰과
비공적의 하나로서 국
김원치목사, 관서지방회장
김원치목사, 교육국장장동
근목사, 전도국장사 전영
복목사, 一行 4인이 1월
二十九일 아침 四国松山
을 향해 떠났다. 차중에
서 앞으로 四国전도의구
체적인 방향을 충분히
의하게 되었다.

松山市에 도착하자 二
神喜十목사를 찾아 松山
市에 거주하는 한국동포
를위한 전도를 제안하고
일본교회와 역사책임과선
교의 공동책임으로 한인
전도에 힘써야할것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회
을 세웠다. 三十日 아침
부터 二神牧師를 앞장세
워 高等學校, 日本교회,
居留民團들을 방문하여
날의 在松山동포 전도에
대한 협력과 그 주동적
역할을 맡고 성의있는
협조의 약속을 받은후,
松山市内에 산재하는 동
포가정을 가가호호 방문
하여 전도하며, 일본사회
의 차별과 소외에서동
포의 교제를 전혀 갖지
못한 고독과 실용에
인 동포의 삶을 여실히
보게되어 우리의 무관심
과 태만을 뼈아프게 느
꼈다.

이어서 車에 몸을 싣
고 今治市에 왔다. 일본
교에서 이름난 今治教
會本牧師와 가류민단의
장 박종환씨를 방문하고
총회조직과 교화운동의중
요성과 今治市내주동포전
도에 대한 계획을 설명
하고, 적극적인 협조의약



新居浜 民團本部 앞에서

속을 받았다. 이곳에서도
동포가정을 방문하여 전
도의 진미를 맛보게되었
다. 외로운 이역 생활에
말할수없이 허전해진 한
국인의 이즈런진 인격의
모습은 우리 4인의 방문
에 심히 놀란듯 민족을
이끄는 대정치가나 큰선
배, 민단본부의 어른 혹
은 고향친정부를모를
듯한상의 감격의 눈초리
로 맞아주는데 우리는일
찌안고 울고픈 심정으로
민단에서 마련해준 보
이던 여행으로 四国전
교의 명화한 전망을 보
게 되었으며 지방별촌에
호터진 동포의 정신적인
비참을 깊이 알게되어,
오늘날 교회가 동포를향
하는 간절함과 사랑의활
동이 너무 결핍되어 있
음을 하나님앞에 솔직히
참회하게 되었다. 또는 4
牧師가 동행한것으로 전
도의 대상인 재류동포에
게 미친 영향과 선교의
성과로 미루어 바울도디
모데와 실라를을同行하
여다닌 뜻을 그럴듯하다
고 느끼게 되었다. 마야
호로 총회전체가 다시선
교의 진요성을 되찾아 교
회형성의 타산적인 관념
을 넘어 진정한 동포의 한
영혼을 전하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간절함을 마땅
으로 방방곡곡 잃은양을
찾아 시간과 노력과 물
질을써 공헌할수 있게됨
을 하나님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

이번호의 「교회를 찾아서」
는 「전도여행記」로 代替했
습니다.

「교회를 찾아서」란을 이
용해 주셔서 여러교회의
특징과 목회자의 목회목
표, 개교회의 장점을 소
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사진 一枚 四〇〇字
2枚 정도, 福音新聞社로
보내, 정수정

여름수양회대책 토의

女伝道會 전국 임원회

祝結婚

女伝道會 전국연합회임
원회는 지난 2月16日大
阪KCC회의실에서 모였
는데 동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주려본다.

1. 참석자 권인숙, 김
주일, 오선비, 김옥래, 김
영환, 김달남, 이금용, 윤
석남, 남주야, 김수태, 이
영숙

2. 결석자 이성실, 한
봉애, 정수정

3. 결의사항 ① 국사공
부를 위한 교육국 주최
교양강좌는 우선 각지방
회별로 수시 개최한 강
좌내용을 문서로써 상호
교류하기로 한다. ② 금년
여전도회의 여름 수양회
상황을 각지방회별로 점
토하고 관동지방과 중부
지방은 연합으로 수양회
를 갖게되며 관서지방(7
월23일~26일)과 서남지
을 거행.

○강원주목·모순희嬢, 1
월27일, 홍동근목사 주례
로 京都교회에서 결혼식
을 거행.

○이상하君·정원여嬢, 2
월3일, 홍동근목사 주례
로 京都교회에서 결혼식
을 거행.

○河東植君·俞善愛嬢, 3
월15일, 김경찬목사 주례
로 西宮교회에서 결혼식
을 거행.

良書紹介
W.パネンベルク著
「神学と神の国」
近藤勝彦 訳

これはパネンベルクにつ
いての解説と彼自身の四論
文からなっている。イエス
の使信の中心にあった「到
来る神の国」を、組織神
学的に、「終末論の優位」
「現在を規定する未来の力」
としてとらえて、そこから
神の問題、創造論、教会と
社会の問題、倫理の問題と
いう今日の神学を取り扱
っている。また第四論文は、
彼がいかにギリシャ哲学や
ヘーゲル哲学に通達してい
るかを示している。この哲
学に対する造詣の深さも彼
の特徴である。

本書から学ぶことの
一つは、終末論・未来理解
についてである。未来を強
調したモルトマンが、現在
のユダヤ教に近づく面を持
っており、一方アルトマン
などが未来の地平を失った
のに対して、パネンベルク
は「現在を規定する力」と
して未来をとらえることに
よって、どちらの困難をも
正そうという意図を持って
いる。

その他色々あるが、第二
独自の務めの内容が、本書

が示しているものだけでよ
いかどうかは、われわれ自
身の信仰の深まりに従って
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う
いずれにせよ、パネンベ
ルクはフォン・ラートから
受けた影響をいかしつつ、
まことに独特な神学を樹立
しつつある。しかしまた、
彼の主張にも、「歴史」「復
活」「キリスト論」の理解
などいくつかの難点がある。
本書だけをよめてみてそ
うである。愛について多く
語るが、いかにも形式的な
気がする。この神学から一
体という「説教」が生じ
るかという危惧もある。さ
らに言えば、この神学の宗
教は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
る。そして、説教者・伝道
者であるゆえに必然的に神
学するわれわれは、教会・
説教・伝道という場が神学
にとっても不可避ではない
かと考えるのである。

要は、外国神学の輸入で
はなく、それと対話しつつ
いかにわれわれ自身が、こ
の時代の中で、福音理解を
深め、世界問題とも取り組
むようになるかということ
である。そのための対話の
相手として、本書のパネン
ベルクは、やはりすぐれた
神学的思索者である。

(編集室)

十字架と復活

横浜教会牧師 金 君 植



なすがたは神に愛されてい
るのだ、神はあなたがたを
うけ入れてくださるのだ」
と。

このように相反する神の
さばきと恩恵の経験は理性
的に認識できる普遍的真理
にもとづいて得られるもの
ではない。これはイエスと
の出会いにおいて与えられ
る経験である。

しかるにこの全く独特な
相反する仕方、神を人び
とに近づけたイエスは十字
架にかけられた。このイエ
スの死は、何人もイエスの
死後は、彼が生前ガリラヤ
やエルサレムで出会った人
びとのように、神の近きな
経験することが不可能にな
ってしまったことを意味す
る。事実、イエスの弟子た
ちは、イエスの死をカサス
ロワイとして、即ち彼らが
これまで信じてきたものの
一切の崩壊として受取った。
イエスの死は、一人の信頼
するものを失った、と言う
だけ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
い。イエスの死によって、
彼との出会いの際にもった
神の近きの経験が不可能に
なってしまうのである。

このようにみえても、
イエスの復活は彼の屍が蘇
生した、と言う奇蹟以上の
ことを意味しなければなら
ない。十字架の死にもかか
らず、イエスがなおも生
きており、一霊においてで
はあるが弟子たちに出会
った、とすれば、彼の復活
は、人びとが彼との出会い
において神の近さを経験す
ることが可能であることを
意味する。パウロがガラテ
ヤ人への手紙で言っている
ように、使徒たちはイエス
を人びとの目の前に描こう
としたのである。彼らの宣
教はイエスの教の単なる
反復ではない。彼らはその
宣教をもって人びとにイエ
スとの出会いを媒介しよう
としたのであり、同時にイ
エスの人格において経験で
きる神の近さを媒介しよう
と努めたのである。

.....

この「やさしい神学」を
読んで感想、質問または要
望などありましたら、筆者
の金君植牧師あるいは福音
新聞社に手紙をおくりく
ださい。みなさまのものと
も深い観心を期待してい
ます。

李英肅

적인 편견을 타파하고
급적인 참변을 무너뜨
고 만국만민이 서로 다
을 각기 이해하며 각
에 흠어져있는 기독교
들이 고락을 함께 하고
로 도우며 사는 《크
스찬·자매애(姉妹愛)
새로운 이상을 바라

을 가지고 모두 함께
도하게 되었습니다.
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영성을 다한 기도의 역
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절
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우기 양단원우리의 국
통일과 온 겨레가 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배
으로 구원의 길에서 참
화하의 생활을 하도록,
기도를 드리고 싶습
는 자기를 향해 반역

米の妹国姫に書信で「老
であるので長患をせず主
下に帰りたい」と書いて
られたと知って、遺族全

牧師辛鍾國

예수교長老會(統合團)
總務로서 本教團 및 日
基督教團과의 協議 등으
來日. 三月四日下午 曄國
△李昌植總務
크리스찬紙(韓國의
독교신문)의 編集人이
家庭文書宣教會 總務인
금번 吳允光牧師著作
國基督教會全史(全五卷
을 出版키위한 中間打
次來日, 二月末曄國.

△李永南教授
嶺南大學教授이며
邱大鳳教會長老 인데
一問題研究次在日僑胞指
者와 協議次來日 三月
旬歸任子定
△姜秉堉牧師
監理教陽光教會牧師、
큐메니칼 인스티튜트의
議參席코 본總會事務所
訪問
△金桂吳牧師
脊髓해르니아 手術次

京厚生年金病院。大塚院
△韓鳳愛先生
崔京植牧師님母님、
人病으로東京お茶の水杏
堂病院에서 手術받고
院中、手術結果는 良好
便。

募集
一致를 생각하며
同音의 同志를 求
待)

工業株式會社
泉 堂
役 張 尚 宰
區區新河岸一丁目一四一七
九三二一五六二番
二番
區若木町二丁目一三
八七二一〇二四二番代)